시간여행 한바퀴…가을힐링 한가득

추석 연휴 가볼만한 나주 관광지

나주시가 남도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선 6기들어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 효과다. 올 추석 연휴 둘러볼만한 나주 관광지를 소개한다.

역사속 빠져드는 재미 쏠쏠…나주곰탕 별미는 보너스
강바람 맞으며 황포돛배 추억 쌓고 아이들과 염색체험
반남고분·영상테마파크 등 둘러보고 억새밭 정취 만끽

황포돛배

●나주읍성권

나주관아가 있던 읍성권은 나주목사가 근무한 금성관과 당시 관사로 사용했던 옛 건축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금성관 앞에서 맛보는 원조 나주곰탕은 별미다.

향교를 에워싼 고졸한 담장과 기와 건축물의 아름다움도 볼거리다. 동재와 서재의 마루에 앉아 수백 년의 역사 속으로 빠져드는 재미도 쏠쏠하다.

●황포돛배

나주의 대표관광 상품인 영산포 선착장 황포돛배는 꼭 한 번씩은 타봐야 할 체험코스다. 선상에서 듣는 시립국악단의 국악 향연은 나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호사다. 이용요금은 8000원.

관광객 필수 코스인 영산포 홍어의 거리는 영산포 선착장과 맞물려 있어 막걸리와 알싸한 홍어 한 점만으로도 남도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나주영산포선착장에는 영산강으로 배가 다니던 시절 사용했던 등대가 육지 등대로는 유일하게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했던 외국인 선수단들 사이에서도 황포돛배 타보기는 최고의 인기 코스로 꼽혔다.

●천연염색박물관

한국 천연염색 박물관은 200여명이 동시에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들어서 있다. 또 10여개의 우수업체가 다양한 천연염색 상품을 전시 판매해 고급스런 천연염색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도 있다. 가족여행객에게는 아이들과 함께 천연염색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염색박물관 탐방이 제격이다.

●반남고분·국립나주박물관

영산포에서 3㎞ 떨어진 나주 반남에 가면 삼한시대 고대왕국을 상징하는 큰 무덤인 고분과 국립나주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고분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았던 지배층의 무덤으로 삼한시대 후기인 기원후 3~4세기에 권위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축조한 거대한 분묘다. 영산강 유역에 독특하게 꽃피웠던 이 같은 옹관 문화의 흔적은 독무덤이 대표적이다, 독무덤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유·소아나 성인의 주검을 넣어 매장한 무덤이다.

반남 고분군과 같은 거대한 고분은 나주 다시 복암리 고분군에서도 볼 수 있는데, 1996년 복암리 고분에서는 금동신발, 큰 칼, 구슬, 토기 등 많은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다. 금동관은 국보로 지정돼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중이다.

출토된 금동신발은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라는 제목으로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지난 21일부터 특별전을 열고 있다. 금동관도 국보로 지정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시중이다.

●나주영상테마파크

주몽을 촬영했던 나주영상테마파크는 나주 최고의 전망대로 꼽힌다. 영상테마파크는 누적 방문객만 1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유명관광지다. 단순한 드라마 촬영장이 아닌 고구려의 건국 역사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영상전문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것이 매력이다.

●영산강억새밭

나주시가 관광 상품으로 나주대교~빛가람대교 사이의 2㎞구간 영산강의 고수부지 내에 조성한 억새밭은 가을이면 절정의 장관을 이룬다.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엔 그만이다. 지친 심신을 달래는 힐링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영상테마파크

영산강 억새

나주 시티투어 버스 12월까지 연장 운행

농업박람회장·억새밭도 거쳐

나주시티투어 버스가 인기에 힘입어 운행을 연장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시티투어를 시험 운행한 결과 평균 탑승인원이 26명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최근 금호고속(주)와 오는 12월 26일까지 3개월간 연장운행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티투어코스는 광주광천터미널에서 매일 오전 9시 20분 출발해 혁신도시~나주역~억새밭~나주읍성~곰탕거리~황포돛배 ~천연염색박물관~국립나주박물관~나주역까지 운행된다. 나주역에는 오후 5시에 도착한다.

특히 이번 연장운행기간 중 영산강변 억새밭과 산포에서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장방문객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 동안 오전 8시 광주광천터미널을 출발할 예정이다. 코스는 혁신도시~나주역~억새밭~농업박람회~나주읍성~황포돛배~천연염색박물관~나주역~혁신도시까지다.

혁신도시 도착시간은 오후 5시 20분이다. 가격은 9000원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티투어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루동안 나주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혁신산단 분양 잇따라…2개사와 계약 체결

총 16개 기업과 투자 협약

나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혁신산업단지 분양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나주시와 나주혁신산단(주), 이우티이씨와 에스유티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혁신산단 사무실에서 장주일 혁신산단 대표이사와 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우티이씨는 전력기자재와 탐지장비 제조업체로 6611㎡에 부지에 30억원을 투자해 5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에스유티이씨는 전력산업용자재 및 무선통신제품 제조업체로 3,500㎡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해 50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나주 혁신산단은 오는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까지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 등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국에서 관련 기업의 투자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나주시 투자유치팀, 혁신산업단지 공동으로 매주 수도권 기업을 방문하는 등 기업 투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업투자와 분양이 조기에 마감돼 전국 대표 산업단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주일 나주혁신산업단지 대표이사(사진 가운데)와 이우티이씨, 에스유티이씨 대표가 지난 22일 혁신산단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농번기 일손 덜어주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

나주시·농협, 152개 마을 지원

나주시와 농협이 농번기철 농민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올해 농업인 공동급식 사업 대상지로 152개 마을(하반기 기준)을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지부장 정순열)와 지원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나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번기 일손경감과 어르신의 돌봄 문화 조성 등 농촌마을의 맞춤형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농번기(9~11월) 중 20일 동안 15인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에 공동식사 준비를 맡은 조리인력의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나주시 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반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에 소요되는 1억97000만원 중 47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협의 지원으로 농번기철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의 일손 경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강인규 나주시장(오른쪽)과 정순열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은 최근 마을 공동급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